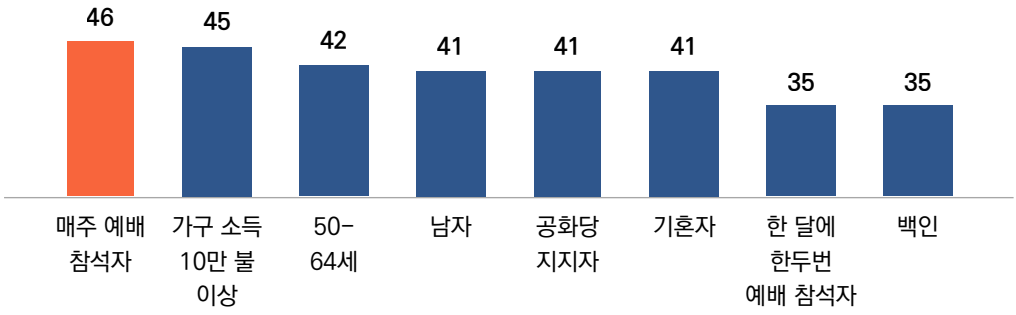
1

미국인의 정신 건강

매주 예배 참석하는 미국인, **미국의 모든 집단을 통틀어 '정신 건강'이 가장 우수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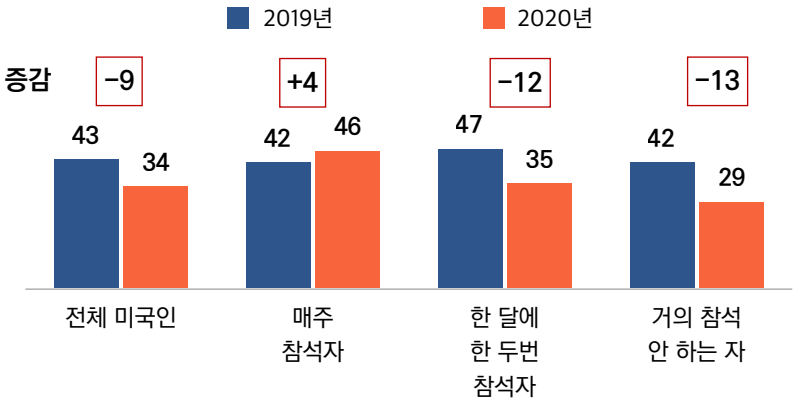
- 미국 갤럽이 실시한 '11월 건강과 의료 조사'에 따르면, 미국인 중 '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'의 46%가 정신 건강이 '우수하다' 고 응답했다. 이는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가구소득 10만불 이상 상류층과 비슷한 응답인데, '매주 예배 참석자'는 2019년 대비 자신의 정신 건강이 '우수하다'고 응답한 모든 집단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.
- 자신의 건강이 우수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2019년에는 '예배에 거의 출석하지 않는 자'와 '매주 출석하는 자'와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, 2020년은 '매주 예배 참석자'는 4%p 증가한 반면, '거의 참석하지 않는 자'는 무려 13%p 하락해 두 그룹 간 17%p나 차이가 났다. 이는 2020년 코로나19 기간 중 예배 출석 정도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.

[그림] 미국인 집단 별 정신 건강 '우수하다' 응답률(2020년, 상위 8위) (%)



*자료 출처 : 미국갤럽, 'Americans' Mental Health Ratings Sink to New Low', 2020.12.7.(미 50주와 워싱턴 DC, 성인 18세 이상 1,018명, 2020.11.5~19)

[그림] 집단 별 정신 건강 '우수하다' 응답률(2020년, 상위 8위) (%)



*자료 출처 : 미국갤럽, 'Americans' Mental Health Ratings Sink to New Low', 2020.12.7.
(미 50주와 워싱턴 DC, 성인 18세 이상 1,018명, 2020.11.5~19)